

2018년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충 청 남 도 의 회
(교육위원회)

2018년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I . 출장개요

1 목 적

- ◆ 외국의 교육 정책 및 시스템 등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수 사례의 의정활동 반영과 충남교육 발전방안 모색
 - ▶ 우수사례 수집으로 충남 교육 접목 방안 모색과 정책제안 등을 통한 의정 활동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
- ◆ 연수국의 교육제도와 문화를 경험하고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문화 공존 인식 함양

2 개 요

- 가. 출장기간 : 2018. 10. 23.(화) ~ 10. 28.(일) / 5박 6일
- 나. 인 원 : 13명(의원 8명, 전문위원실 3명, 집행부 2명)
- 다. 방문국가 : 싱가포르, 대만(타이완)
- 라. 주요내용
 - 외국의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및 교육분야 우수사례 벤치마킹
 - 국제적 리더 양성을 위한 선진 국제학교의 핵심교육정책 및 교육과정 분석
 - 아시아 교육강국의 교육비전 및 정책방향을 분석하고 교육정책 발전방안 모색

③ 방문기관 및 주요 착안사항

| 방문기관 | 주요 착안사항 |
|--------------------------------------|--|
| 〈싱가포르〉 교육부 MOE HERITAGE CENTE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교육의 역사와 교육시스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교육의 역사 이해 ▶ 싱가포르 교육시스템 분석 ▶ 싱가포르 교육비전 및 정책방향 이해 ▶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충남교육 발전방향 모색 |
| 〈싱가포르〉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 국제학교 교육정책 방향 관련 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교육과정 중 핵심교육정책 현황 ▶ 학교현황 및 교육과정 분석 ▶ 통합학교의 장 · 단점 비교 분석 ▶ 다문화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 국제적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내용 파악 ▶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지원 내용 내용 파악 ▶ 학교시설 운영 현황 파악 |
| 〈대만〉 타이페이시 정부교육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이페이시 정부교육국의 교육비전 및 정책방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및 조직 현황 파악 ▶ 타이페이 정부교육국 운영제도 자료 수집 ▶ 타이페이 정부교육국 교육비전 및 정책방향 이해 ▶ 타이완의 중점 교육정책 및 교육우수사례 수집 |
| 〈대만〉 베이터우 시립도서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도서관 운영 현황 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현황 및 시설 견학 ▶ 지역주민의 도서관 만족도 ▶ 도서관 운영 발전방향 모색 |

※ 당초 10. 26.(금) 대만의 교육문화위원회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대만 현지의 지방 선거로 인해 방문이 취소되었고, 타이페이 정부교육국을 방문하였음.

④ 출장자 주요역할

| 분야별 | 직 | 담당 | 주요역할 | 비고 |
|---------------------------------|------------|------------|--|----|
| 아시아 교육강국 교육정책 모델분석 | 의원 | 김석곤 김은나 | <p>싱가포르 MOE HERITAGE CENTER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교육의 역사 이해 ▶ 국가 교육비전 및 정책방향 분석 ▶ 교육정책 우수사례 분석 | |
| 세계화 시대 국제교육 정책 분석 | 부위원장 의원 | 한옥동 조철기 | <p>싱가폴 국제학교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현황 및 교육과정 비교 분석 ▶ 다문화 학생 교육정책 파악 ▶ 세계화 시대에 국제교육 정책 분석 | |
| 타이페이 정부교육국 운영제도 및 정책방향 | 위원장 의원 | 오인철 홍기후 | <p>대만 타이페이시 정부교육국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교육국 규모 및 조직 현황 파악 ▶ 타이페이시 교육운영제도 분석 ▶ 타이완의 중점 교육정책 및 교육우수사례 수집 | |
| 도서관운영 발전방향 | 부의장 의원 | 이종화 김동일 | <p>대만 베이터우 시립도서관 견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운영현황 분석 ▶ 지역주민의 도서관 만족도 ▶ 도서관 운영 발전방향 모색 | |
| 전문 위원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출장 계획 수립 및 결과 정리 ▶ 연수일정 체크 및 관리 ▶ 공식 방문기관 섭외 및 견학자료 준비 ▶ 현장활동 지원 및 사진 관리 등 | |
| 집행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교육정책과 외국 교육정책 비교 | |

II. 주요 출장내용

1. 싱가포르

싱가포르



- 수도: 싱가포르(Singapura)
- 언어: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4개 공용어
- 면적: 약 712.4km² 서울시의의 1.18배
- 인구: 약 531만명
- GDP: 약 2,765억 달러

정식 국가 명칭은 싱가포르 공화국(The Republic of Singapore)이다. 1819년 영국이 무역 거점으로 개발한 도시로, 이후 영국의 해협식민지(The Straits Settlements)가 되었고 1959년 새 헌법에 따라 영국 연방의 자치령이 되었다. 1963년 말레이시아의 일부가 되었다가 1965년 주권국가로서 분리 독립하였다.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최남단에 위치하며 싱가포르 섬과 60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 형태는 공화국이고 정부 형태는 대통령 직선제하의 내각책임제로 단원제 의회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며 의회는 2010년 현재 직선의원 84석, 지명의원 9석, 무선거구 1석 등 총 94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평균 최고기온은 31.0℃, 최저기온은 24.1℃이고 연평균 강우량은 2,346mm이며 평균 습도가 오후 2시 기준으로 84.2%이다.

□ 싱가포르의 교육

싱가포르는 다인종, 다언어, 다문화로 구성된 복합 사회인 점을 고려하여 교육을 통한 국민 통합 의식 양성을 국가 존립 기반의 근본으로 인식하고 있다. 헌법은 각 인종 간 평등주의를 규정하여 말레이어, 중국어, 타밀어,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으며 교육 과정은 언어 교육을 중시하며 각 인종 고유 언어 외에 영어를 필수 언어로 하여 반드시 2개 언어를 이수해야 하는 2중 언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학제는 유아교육(유치원)-초등교육(초등학교 6년)-중등교육(중학교 4년~5년)-고등교육[주니어 칼리지(Junior College) 2년, 심화 학교(Centralized Institute) 3년] 또는 한국의 전문대학 격인 폴리테크닉(Polytechnic(3년))-대학교로 이루어진다.

싱가포르는 세계화 및 지식 기반 경제에 적응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실용주의적 교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교과 과정은 2개 언어와 수리 과목에 치중하고 있다. 초등학교 과정부터 대학까지 매 과정마다 경쟁을 통해 소수 정예만이 대학 과정을 마칠 수 있는 능력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싱가포르는 1970년대 중반부터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제조업 부문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연차적으로 대학의 이공 계열과 한국의 전문대학 격인 ‘폴리테크닉(Polytechnic)’을 증설하였다. 이후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높은 교육열로 인해 대학 진학 실패자들의 외국 유학 선호 현상이 급증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해외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가. 싱가포르 MOE Heritage Center

〈아시아 교육강국 교육정책 모델분석: 김석곤 의원, 김은나 의원〉

| | |
|------|---|
| 명 칭 | MOE Heritage Centre(교육부 갤러리) |
| 주 소 | 402 Commonwealth Drive Singapore 149599 |
| 웹페이지 | (65) 6838-1614 / FAX : (65)6745-7843 |
| 개 요 | <p>싱가포르 MOE Heritage Centre는 교육부 갤러리로 19세기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싱가포르의 교육시스템을 견학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p> <p>많은 싱가포르 교사들의 교육을 향한 맹세와 노력으로 설립이 가능했으며, 능력 있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육자 발굴을 위해 설립했습니다.</p> <p>2011년부터 교육관련 연구팀 설립 및 연구 개발 시작하여 현재까지 많은 분들에게 싱가포르의 교육철학을 느낄 수 있도록 많들어 놓은 곳입니다</p> <p>오늘의 싱가포르 교육제도는 굉장히 타이트한 편이다. 시험성적에 따라 계속 공부하고 노력해야 하며, 대학교육 이상의 엘리트 육성시스템으로 들어가려면 일정수준의 이상의 시험성적을 거두워야 하고 그게 아니면 일찌감치 직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p> <p>이는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도 마찬가지 제도이다. 다만 싱가포르는 국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훨씬 강력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게 차이점이다.</p> <p>초등6학년에 좋은 시험 성적을 거두지 못한 학생이라도 2년간 유급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중등학교 진학시험을 치를수 있도록 기회가 부여된다. 특히 싱가포르는 부모의 경제력 능력과 상관없이 능력만 된다면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다는 점에서는 영국과 독일보다 훨씬앞서 있다고 할 수 있다.</p> <p>또한 이렇게 치열한 선발과정을 거쳐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상당수 해외유명대학으로 유학을 떠나며, 상위 학생들에게는 싱가포르 정부에서 장학금을 제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돋는다.</p> |



1) 주요 질의답변 - 싱가포르 MOE HERITAGE CENTER

○ (김석곤 의원) 교육비 및 교육 제도와 관련된 싱가포르 교육의 역사는?

⇒ 19세기 최초 무료 교육 실시. 이후 일본의 식민지 지배 3년 간 전쟁에 따른 식민지 교육 실시. 1945년 일제 패망 후 공립학교들의 기능이 상실됨. 1947년 정부에서는 10년 교육계획을 발표 후 무료교육 실시. 1950년대 취업의 어려움 및 다인종 국가 내 언어 소통의 어려움이 문제시 되는 혼란기에 들어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무적 2개 국어 교육을 실시(영어와 모국어 사용). 1954년 강력한 국가 양성을 위하여 교과 위주 학문뿐만 아니라 기술 교육, 학교 스포츠교육을 발전. 오전에는 학문 위주, 오후에는 다양한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개혁함. 1978년 초등교육 무료, 중등교육은 수업료(학교운영비)를 부과함. 교육과정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사 외국교육 실시 후 선진 교육과정을 도입함. 학부모들의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학생들의 교육수준 향상과 함께 개인주의 성향이 만연하는 문제점도 함께 나타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성교육을 강조. (이 시대 교육 예산이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함). 예술교육 등 교과 외 활동 예산을 확대 지원하였으며, 방과 후 활동을 필수 교과과정으로 편성. 1980년대 초등학교의 의무교육을 시작하였으며 미 입학 시 경찰이 가정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음. 초등학교 진학을 못하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

2000년대 이후 정보화교육을 위한 4가지 마스터플랜을 제시함. (모든 학교에 ICT 교육, 모든 학생들의 컴퓨터 사용을 의무화함. 국제적 문화 리더 양성을 위한 미래 디지털 대응 읽기능력 강화 교육 등)

○ (오인철 의원) 최초 싱가포르 공립학교의 역사는?

⇒ 영국인의 유입으로 선교사 학교로 시작됨. 중국인의 경우 중국학교 활용 후 정부학교로 인정됨. 많은 이민자들이 교육에 투자함.

○ (김은나 의원) 인성교육 분야를 제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 ⇒ 인성교육을 위해 16세부터 의무적으로 인도네시아, 태국 등 체험 및 봉사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킴. 역사가 짧은 신생 국가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선조들의 노력과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성교육에 중점을 둠. 어려운 시설 방문 봉사, 기부 문화를 권장하는 형태로 인성교육 체험을 강화시키고 주변 국가의 사례를 활용함. (인도네시아 등 지진, 쓰나미에 대한 도움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 매주 토요일 주제별 모금활동 등)

○ 다인종 국가 내 문화의 차이는 어떻게 조율하는가?

- ⇒ 수업 시 학생 간 인종, 종교와 관련하여 언급하지 않음. 다양성을 조화롭게 하는 노력을 함. 다인종의 경우 주택도 비율을 할당하여 지급. (4가지 인종의 경우 각 비율별로 입주함.) 각 인종의 축제와 전통을 존중하고 함께 참여함. 언어는 공통어인 영어를 사용하며 ‘나는 싱가폴 국민으로서 하나다’를 강조함.

○ (홍기후 의원) 싱가포르 학부모의 교육열의 정도는? 대학을 가기 위한 사교육이 발달되어 있는가?

- ⇒ 학부모의 학구열, 교육열이 높음. 그러나 PSLE(초등학교 졸업시험) 제도로 중학교부터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가 대부분 결정되기에 대한민국만큼 사교육 경쟁이 치열하지 않음.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잘하는 부분은 인정함.

○ 교육자만 교장이 될 수 있는가?

- ⇒ 교장은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에서도 가능함.

○ 싱가포르 학교의 종교 교육은?

- ⇒ 19세기 이후 통합교육을 실시함. 공식적인 종교 교육은 없음.

○ (김동일 의원) 지역별 학교 수가 정해져 있는가?

- ⇒ 도시국가라 그러한 제한은 없음. 우선순위에 따라 학교가 설립됨.

○ (김석곤 의원) 학부모가 교사를 대하는 태도는? 교권 보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 학부모와 교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짐. 교사 교육을 중요시함. 아이가 다친 경우 학부모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음. 예전에는 바로 교사나 교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음. 현재는 모든 민원은 교육당국 메일로 주고받으며 교사와 학부모가 소통하는 교육청 계정이 따로 존재함.

2) 시사점, 교육현장 활용방안

○ 김석곤 의원

☞ 싱가포르는 서울시의 1.2배 면적과 인구 530만명의 작은 국가이지만 2017년 기준 국가경쟁력 세계3위, 1인당 GDP 아시아 1위, 교육경쟁력 아시아 1위의 아시아 강국이다.

특히, 1960년대 리콰유 전총리의 강력한 국가 양성을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정책 개혁과 공교육을 강화하여 현재 아시아 최고의 교육강국이 되었다.

2개국어 의무교육 실시와 2000년대 이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정보화교육의 4단계 마스터플랜 등 장기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팔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최근 학생들과 학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주의가 만연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충남교육도 4차사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코딩교육의 의무화 등 정보화교육정책 제도의 정비와 검토가 필요하며 학생 인성교육과 교권보호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 할 필요성이 있다.

☞ 관련부서: 미래인재과, 교원인사과, 충남교육연구정보원

○ 김은나 의원

☞ 이번 방문을 통해 다인종 국가의 언어, 문화, 종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싱가포르의 정책과 역사를 보면서 이를 충남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 현 교육 정책 분야에서도 다문화교육 진흥 및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가 활성화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싱가포르의 이러한 선진 사례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문화적 차별이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시민 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으리라 느낄 수 있는 기관 방문이었다.

☞ 관련부서: 학교교육과

3) 방문기관 사진



방문단을 맞이하는 관계자



관계자의 설명을 경청하는 연수단



전시물을 둘러보는 연수단



관계자의 설명을 경청하는 연수단



실외 기념촬영



방문 종료 후 기념품 전달

나. 싱가포르 한국 국제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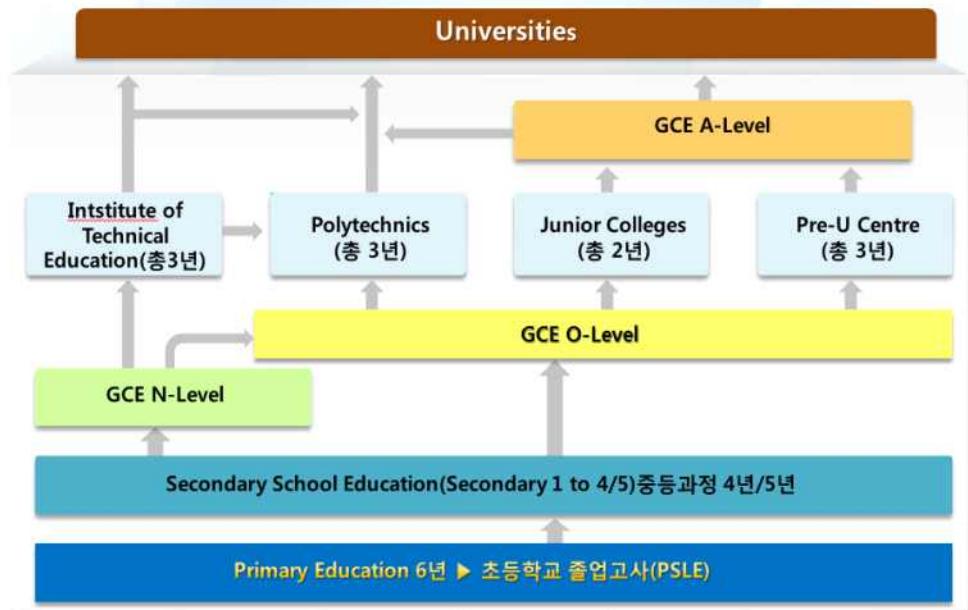
〈선진 국제학교 교육방향 자료수집: 한옥동 의원, 조철기 의원〉

| | |
|------|---|
| 방문지명 | 싱가포르 한국제학교 |
| 주 소 | 74, Lim Ah Woo Road, Singapore 438134 |
| 연락처 | (65) 6741-0972 / FAX : (65)6741-1321 |
| | <p>싱가포르한국학교는 한국 동포 자녀들의 국내연계교육과 현지적응교육 및 모국이해교육을 실시하여 자부심과 궁지를 지닌 한국인을 양성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설립한 한국학교이다. 1990년 2월 한국학교 설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학교법인을 설립한 이후 한국 교육부의 설립인가를 받고 그해 3월에 주재국 설립허가를 받아 1993년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를 개교하였다. 정규초등학교의 설립에 이어 2011년 3월에는 중학교와 병설 유치원을, 2012년 3월에는 고등학교를 개교하였다.</p> <p>싱가포르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은 일시 체류민 자녀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귀국 후 학교 및 사회적응의 능력 제고를 위해 국내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서구문화와 동양문화의 조화를 중시하는 다문화 사회로서 영어, 중국어, 바하사 인도네시아어, 타밀어 등 4개 국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다중언어 국가인 현지 특성을 반영하여 영어, 중국어 및 IT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p> <p>한국 정부는 1996년부터 싱가포르로부터 효율적인 국가 운영과 청렴한 국가 지도자의 자세를 배운다는 목표를 세워 실행한 바 있으므로, 싱가포르 한국학교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도입 · 운영하여 미래의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p> |
| 개 요 |   |

〈참고자료〉

04 싱가포르의 학제

싱가포르
학제



SKIS

04 정규교육과정

싱가포르
국제학교
정규교육과정

| |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
| | | N1-K2 (4-7세) | G1-G6 (8-13세) | G7-G9 (14-16세) | G10-G12 (17-19세) |
| 한국 교육과정 | 교과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누리과정 운영 - Balanced Approach에 기초한 모국어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교육과정 운영 - 1-2G: 국어, 수학, 통합 - 3-6G: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도덕, 미술, 창의영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사회, 한국사,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도덕 등 기본적인 한국교육과정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사회(한국사,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등 기본적인 한국교육과정 운영) |
| | 창의적 체험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리, 신체활동, 과학, 독서 활동 등을 일과 중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2시간 동아리활동 (체육, 미술, 음악, 생활탐구 4영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1시간 (Research Project와 CA 격주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1시간 (Research Project와 CA 격주 운영) |
| | 방과후 교육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 겨울방학 중 운영 (1~2주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서 주 1회 1시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서 주 1회 1~2시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서 주 1회 1~2시간 |
| 국제 교육과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 개인차를 고려한 영어 수업 - 월어민 공동 담임제(K학년~) - 중국어 기초 단어 습득 및 놀이 중심의 생활 회화 수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어민 공동 담임제 - 학년별, 레벨별 수업 - 영어, 중국어 인증제 실시 - 영어 수업 (영어 수학 및 영어 과학 등) - 국제공인영어프로그램 CIPP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중국어 학년별 수준별 수업 -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50% 이상(Human Geography, Science(Chemistry, Physics)) - 국제 교양 교과목 (Asian Culture) 운영 - 중국어 인증제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중국어 학년별 수준별 수업 - 우수 학생을 위한 미국의 AP 교과 개설(Economics, Human Geography, Biology, Chemistry, Physics) -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50% 이상 - 영어 교과 AP 교재 사용 - HSK 운영 - English Math 교과 운영 |
| | | | | | |

SKIS

1) 주요 질의답변 - 싱가포르 한국 국제학교

- (한옥동 의원) 싱가포르 Research project와 한국 자유학기제의 차이점은?
 - ☞ 싱가포르에서 한국의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기에는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이 있음. Research project는 학생들이 소논문을 만들어 영어로 발표하는 수업임. 10개 주제를 발표함.
- 원어민 공동담임제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 ☞ 원어민 공동담임제는 두 담임(한국인, 원어민)이 생활지도를 같이 실시함. 수업과정과 담임을 분리하는 한국의 원어민 수업 제도와는 다름.
- (조철기 의원) 학년, 레벨별 수업을 운영하는데 같은 학년이라도 레벨을 못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 ☞ 영어, 중국어는 레벨수업을 운영함. 학생 구성상 다양한 전학생이 존재함. 한국인 학생들의 경우 꾸준히 다녔던 학생들과 수준차가 발생함. 원어민 수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High 1-Mid 2-Low 1레벨로 나눠서 지도함.
- (한옥동 의원) 싱가포르 국제학교의 하루 일정이 궁금하다.
 - ☞ 유·초등학교는 08:30~16:30, 중·고등학교는 08:10~16:00 운영함. 유치원은 09:10 등교, 09:30 수업시작, 11:40~12:20 점심시간, 이후 3세반 낮잠, 4-5세반은 수업을 함. 원어민 수업은 15:00 종료. 초등학교 첫 셔틀버스 시간은 07:30. 07:40~08:30 식당에서 안전 문제로 학생들을 다 같이 관리함. 학급담임 2명 중 1명이 출근 후 아이들을 데려감. 아침자습 시간은 08:30~09:10 (수업은 하지 않고 활동, 체험 위주로 운영), 15:35 수업 종료.

CA는 60분 단위로 운영됨. ~16:35 셔틀버스로 하교.

고등학교는 08:20 등교, 08:30 수업.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50분 수업, 7교시로 운영됨. 12:20~13:10 점심시간. 16:00 수업 종료. AP(선택과목) 2시간 수업을 더 진행하고 18:00 하교. 야간 자율학습은 강제성은 없으며 자율적으로 운영됨. 20:50까지 운영.

○ 학생들의 사교육은 많은 편인가?

☞ 영어 과목은 불가피함. 초등학교는 영어, 중·고등학교는 개인과 외(수학)이 많음. 한국 학생들의 국어, 한국사 실력 차이가 많이 남. 영어 수업은 AP, AE, ESL로 나눠짐.

○ (조철기 의원) 특성상 주재원 자녀들이 많은가? 교육과정을 다 마치는 경우는?

☞ 그렇다. 주재원 평균 연령대가 낮아짐에 따라 자녀들의 나이가 적음.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에 한국으로 귀국하는 아이들이 많음. 이와 같은 이유로 중학교 학생 수가 줄어듦.

○ (한옥동 의원) 싱가포르 교육은 경쟁 위주의 교육인가? 아이들의 교육 만족도는 높은 편인가?

☞ 경쟁 위주의 교육이나 큰 문제는 없음. 대학 졸업자 간의 급여, 취업률 차이가 크지 않음. 경쟁을 하지만 한국만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 평가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는지?

☞ 학부모는 PSLE(초등학교 졸업고사) 시험에 신경을 쓰지만 학생들의 행복 만족도를 조사하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지 않음. (싱가포르의 취업률이 높아) 사회 진출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 시험을 보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만 그만큼의 부담도 큼.

2) 시사점, 교육현장 활용방안

○ 한옥동 의원

⇒ 국제화 시대 언어 교육에 관해....

초등과정에서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세 가지 언어를 학습하고 있었다. 각 학급당 공동담임으로 한국어/영어 선생님으로 한국어 수업과 영어 수업을 나누어 진행하고 계시며, 중국어 교과 교사가 중국어 수업을 진행함.

우리나라에서도 언어교육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어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 교육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많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독해능력도 필요하지만 말하는 회화중심 교육으로 개편되지 못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하루 빨리 개혁을 통해 영어교육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제2 외국어를 더욱더 확충하여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에 관해...

우리 교육과정과 비교하면 창의영재 수업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있었으며 특히 수학과 창의과학을 중점을 두고 영재 교육을 담당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래 사회가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제4차 산업혁명이나 정보화 사회라는 화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사회 변화에 좀 더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과 간의 경계를 허무는 수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핀란드 교육 과정을 통해 주제를 가르치기라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실험하고 있다. 융합적인 학습 경험은 좀 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모든 학교는 학생들이 다양한 형태의 융합적인 학습을 자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획하여야 한다. 모든 교과 수업을 통한 정보화 역량의 강화를 통해 국가와 개인의 삶을 위해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다양한 정보처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관련부서: 학교정책과, 학교교육과

○ 조철기 의원

☞ ‘한국의 창을 열고 세계를 누벼라!’ 학교 정문을 통과하면 본관 정면에 있는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의 캐치프레이즈가 눈에 띈다 국제학교는 유·초·중·고 통합학교로 교직원 84명, 전교생 461명 규모의 학교이며, 국제 교육과정과 한국교육과정을 융합하여 한국인의 정체성과 함께 세계화 시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은 이중언어정책과 경쟁위주의 수월성 교육으로 초등학교때부터 중학교입시시험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다만 중,고등학교시기에 진로와 관련하여 수준별로 직업전문학교를 선택하는 등 사회진출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행복지수와 만족도는 우리나라에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 비해 높다. 또한 치열한 선발과정을 거쳐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상당수 정부에서 장학금을 제공하며 해외유명대학으로 유학을 다녀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한국의 교육은 대학입시에 집중되어 사교육 문제와 고등학교의 경우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고3의 경우 수능시험 이후에는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학생들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안정화하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산학협력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PSLE(초등학교 졸업시험) 제도가 인상 깊었다. 어린 학생들이 시험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대학 진학에 따른 사회에서의 임금 및 인식이 대한민국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공교육의 발전 방향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입시 제도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꿈과 끼를 펼쳐나갈 수 있을까에 대하여 다시금 일깨워준 방문이었다.

☞ 관련부서: 학교정책과, 학교교육과, 미래인재과

3) 방문기관 사진



방문단을 맞이하는 관계자



관계자의 설명을 경청하는 연수단



국제학교 행정실 방문



국제학교 실내 체육관 현장방문



학교시설을 둘러보는 모습



실외 기념촬영

② 대만[타이완]

| 대만(타이완)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수도: 타이페이(Taipei)<input type="checkbox"/> 언어: 중국어<input type="checkbox"/> 면적: 약 36,190km² 남한면적의 1/3배<input type="checkbox"/> 인구: 약 2,300만명<input type="checkbox"/> GDP: 약 2,348억 달러 |
| <p>타이완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 푸젠성과 마주하고 있는 나라로 중국 본토에서 약 150km 떨어져 있다. 1885년 하나의 성(省)으로 독립하였고, 청일전쟁 뒤 일본 최초의 해외 식민지가 되었으며, 1949년 중국공산당과의 내전에 패배한 국민당의 장제스 정권이 이전해 와 성립된 국가이다</p> <p>원래는 부속제도인 평후제도[澎湖諸島], 휘사오섬[火燒島], 란위섬[蘭嶼] 등 79개 도서를 합하여 중국의 1개 성(省)인 타이완성을 이루었다. 그러나 1949년 이래 타이베이[臺北]를 임시수도로 정하고 있는 타이완 국민정부의 지배지역이 되었고 그 범위는 타이완 및 푸젠성에 속하는 진먼섬[金門島]과 마쭈섬[馬祖島]이다. 행정구역은 2개 직할시, 22개 현(縣) · 시(市)로 구성된다.</p> | |
| <p><input type="checkbox"/> 대만의 교육</p> <p>중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교육이 중시되어 왔으며 이를 반영하듯 타이완(臺灣) 헌법 164조는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최소 지출액까지 명시하고 있다.</p> <p>지난 10여 년 동안 타이완의 교육 정책은 대학교육에 치중되어 왔다. 타이완은 1997년 7월 18일 헌법 수정(추가 조항 10조)를 통해 의무교육 9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추가 조항에서는 국민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2007년부터 국민기본교육 기간을 12년으로 연장하였다.</p> <p>타이완의 의무교육 9년제는 1968년에 규정되었으며 2009학년도 6세~21세 연령층 가운데 각급 학교에 취학한 비율은 약 97.9% 수준(초등학교 연령층의 취학률 약 99.31%)이었다.</p> <p>2009학년도 총 8060개의 등록 학교에서 교사 1인당 지도 학생수는 18.49명이었으며 초 · 중등의 학급당 학생수는 30.1명이었다. 타이완의 문맹률은 2009년 기준으로 2.1%(15세 이상)이다.</p> <p>타이완은 교육부가 교육정책을 담당하며, 지방정부에는 교육청 · 교육국이 설치되어 있다.</p> | |

가. 타이페이시 정부교육국

〈타이페이시 정부교육국 교육방향 분석: 오인철 위원장, 홍기후 의원〉

| | |
|------|--|
| 방문지명 | 타이페이시 정부교육국 |
| 주 소 | 11008 臺北市信義區市府路1號 |
| 연락처 | (02)2725-6348 |
| 개요 | <p>타이페이시의 전체적인 공교육에 모든 권한 (취학전교육, 초중등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 등)을 갖고 있으며, 교사배정, 및 교육 방향과 정책 및 공공사업을 관여 총괄 하는 곳입니다.</p> <p>이 사무소는 타이베이시에 속해 있으며 1인의 이사, 2명의 부회장, 1인의 이사 및 4명의 특별위원회가 있으며, 9개 부서와 7개의 방, 347 개의 예산 계시물이 있습니다.</p> <p>국장, 부국장 (2명), 사무 총장, 특별위원회 (4명), 감사관 (4명), 비서관 (3명), 직원 및 노동자 (3명) 총 17 명으로 구성된다. 대학은 1 개, 고등학생은 33 개, 특수학교는 4 개, 국립학교는 59 개, 전국 소규모 학교는 140 개, 유치원은 14개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 기획부 (16명) : 고등 교육, 국제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청소년 교육 및 뉴스 링크, 정부 연락, 연구 개발 및 규제 평가와 같은 포괄적 인 문제. 중등 교육 부문 (22명) : 고등학교 및 중등 학교 교육 및 기타 문제. 국가 교육과 (16명) : 국가 교육. 취학 전 교육 (24명) : 취학 전 교육이 중요합니다. 특수 교육과 (13명) : 특수 교육 문제. 평생 교육 (23명) : 평생 교육 및 보충 교육. 스포츠 및 건강 관리 (23 명, 12 명 중 풀 타임 스포츠 코치) : 모든 수준의 스포츠, 보건 및 환경 교육. 공학 및 재산과 (25명) : 시립 학교, 본 협의회의 사회 교육 기관 등의 재산 관리 및 캠핑 사업 인수. 정보 교육과 (13명) : 정보화 기술을 교육 및 학습, 행정 정보 및 정보 교육에 응용 <p>등의 업무를 지휘하고 총괄하는 타이페이시의 정부 교육국입니다.</p>   |

1) 주요 질의답변 - 타이페이시 정부 교육국

- (오인철 의원) 4차산업 미래 교육을 위해 현재 어떤 것을 준비하는가?
 - ⇒ 과학기술, 코딩, 생활과학 등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수업과 시험을 실시함. 시에서 학생들에게 아이패드를 공급. 2019년부터 NT\$ 12억(한화 약 442억)을 3년간 제공하여 유선 케이블을 교체하게끔 사업 실시.
- (오인철 의원) 시장의 방침에 따라 교육 정책이 변하는가? 시장 밑에 교육국이 있는가?
 - ⇒ 교육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고 정책 운영이 일관되도록 노력함. 민주국가라서 시장 산하 교육국 국장-과장-각급 교장-주임-교사 순으로 운영됨.
- (홍기후 의원)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좋은 교사를 만들기 위한 평가 지표가 있는가?
 - ⇒ 시청 교육국에서 3-4년 단위로 학교와 교사를 평가함. 10개 항목이 있고, 각 항목마다 10개의 세부 지표가 있음. 학교 행정, 환경 등 다면 평가를 실시함. 학생들은 표현력 능력을 평가함. 학부모와 학교 커뮤니케이션도 평가함. 자연재해가 많아 6개월마다 안전교육, 시설 평가를 실시함.
- (홍기후 의원) 평가는 교육국 주최로 이루어지는지? 외부 기관이 개입하는가? 평가에 따른 학교의 불만은 없는가?
 - ⇒ 교육국의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교육국, 대학교, 사회단체로 구성됨. 평가 지표는 교육국에서 큰 틀을 제시함. 전문대학의 교수를 선출하여 검증 후 위탁 평가를 맡김. 타이페이의 현 시장은 모든 것을 공개하고 모든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슬로건을 내세움.

○ (심역총 과장) 타이페이 학부형들은 자녀가 인문계에 진학하는 것을 선호하고 실업계를 선호하지 않음. 한국의 직업학교 정책은 잘 운영 되는가?

☞ (오인철 의원) 한국도 인문계를 선호함. 직업학교는 농업계, 상업계, 공업계로 구분. 마이스터고(공업계열)가 전 지역에서 1-2개씩 운영 됨. 마이스터고는 기업과 연계되어 추후 취업이 용이하도록 제도 적으로 연결됨. 이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심역총 과장) 한국의 교육정책은 기업주도로 운영되는가?

☞ (한옥동 의원) 대한민국도 창의력 교육, 인공지능 교육, 드론, 코딩 등 미래 4차산업 성공 기반을 위해 노력함. 기업이 아닌 개인 창의력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함.

○ (홍기후 의원) 학교 평가시 불만을 가지는 단체, 노조가 있는가?
그렇다면 노조의 반대는 없는지?

☞ 교사 조합이 존재함. 협상과 토론으로 이를 중재함. 정부에서는 큰 평가 타이틀을 제시하고 평가진들과 협상을 거쳐 타협을 함. (예로 100명 평가시 50명으로 절충, 지표가 10개 시 5개로 절충 등) 적정 평가에 따라 예산 지원을 증감시키며 이에 따른 교사의 스트레스가 많은 편.

○ (홍기후 의원) 교사 역량 강화 연수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 초등학교는 매주 수요일 오후 연수 시간을 가짐. 중·고등학교는 주일 내 한번, 오후에 실시함.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주로 이용 하며 예산을 지원받아 그룹을 만들고 교사 연수를 실시.

2) 시사점, 교육현장 활용방안

○ 오인철 의원

- ⇒ ‘미래를 향한 타이페이 교육 약진’ 을 공약으로 내세운 타이페이 시의 슬로건에서 대만 교육의 방향성이 잘 드러났다. 대만 역시 대한민국처럼 주로 교사 주도적 교육이지만, 아이패드를 활용한 학생들의 영상 제작이나 게임을 통한 교육 방법 등 다양한 교육 공학 분야의 시스템은 한국에서도 활용되어야 한다고 느낌. 4차 산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이러한 예산 지원들이 한국 교육에도 다양하게 접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는 방문이었다.
- ⇒ 관련부서: 미래인재과

○ 홍기후 의원

- ⇒ 대만의 교사, 학교 평가제도는 대한민국의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느낌.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공교육의 질 향상, 신뢰제고 등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하지만 여러 사회적 갈등 요소가 맞물려있는 만큼 이러한 평가제도를 긍정적으로 응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절충과 타협을 통해 교사와 학생, 그리고 충남 교육이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방문이었다.
- ⇒ 관련부서: 교원인사과

3) 방문기관 사진



연수단을 환영하는 관계자

위원장의 충남도의회 소개 장면



타이페이시 정부교육국 소개와 질의응답

타이페이시 정부교육국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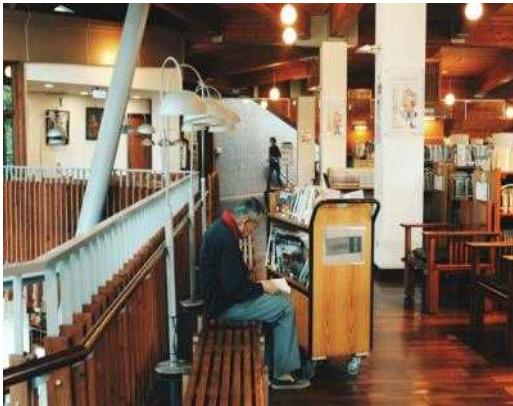


기념품 전달

방문 종료 후 기념촬영

나. 베이터우 시립도서관

〈지역도서관 운영현황 자료 수집: 이종화 부의장, 김동일 의원〉

| | |
|-------|---|
| 방문지명 | 베이터우 시립 도서관 |
| 주 소 | 251 Guangming Rd., Beitou, Taipei, Taiwan |
| 연 락 처 | (02)2897-7682 |
| | <p>대만의 타이페이 시립도서관 분관으로 규모가 큰편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중 하나로 철근과 나무로만 만들어진 친환경 도서관으로 유명하다. 누구나 들어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산책로 그리고 조경도 도서관의 일부로 책을 읽고 힐링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만에서도 유명한 도서관 중 한 곳이다.</p> <p>베이터우 시 온천박물관과 공중 목욕탕(온천)과 이웃함.</p> |
| 개 요 |    |

1) 주요 질의답변 - 베이터우 시립도서관

○ (김동일 의원) 원래 도서관 자리인가? 친환경적으로 재건축하였나?

☞ 그렇다. 이 지역은 베이터우 행정지구 주민들이 사는 온천 관광지역이다. 따라서 친환경적인 건물로 재건축함.

○ 지붕이 가파른 이유는 무엇인가?

☞ 빗물을 흘러내려 여과 과정을 거쳐 화장실 수도로 쓰도록 함. 이러한 방법으로 수돗물 사용을 절약할 수 있음.

○ (이종화 의원) 도서관 시설 이외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가?

☞ 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이곳은 대만의 관광지이며 자연 생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태보호지역 홍보관을 만들 예정임. 베이터우 시립도서관은 유적지보존, 관광, 문화를 아우르는 도서관임.

○ (김동일 의원) 도서관 운영을 위한 신간 도서 교체율은 얼마나 되는가?

☞ 예산은 시청에서 지원받음. 1년에 1번 새 책이 들어오고, 매년 4천권 정도 들어옴.

○ 도서관을 재건축하고 이용객이 많이 증가하였는가?

☞ 그렇다. 하루 이용객은 2-3천명이며, 주말에는 3배 정도 증가함.

○ (이종화 의원) 운영 시간은? 그에 따른 직장인들의 운영시간 연장 민원은 없는가?

☞ 화요일~토요일은 08:30~21:00, 일요일~월요일은 09:00~17:00임. 시간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은 없음.

2) 시사점, 교육현장 활용방안

○ 이종화 의원

☞ 베이터우 시립도서관은 전시실이나 프로그램 운영 없이 순수한 도서관 기능만 하는 곳이다. 규모는 충남도서관의 30% 정도로 작지만, 1일 이용객이 2~3천 명 정도이고, 주말에는 3배의 이용객이 찾아온다 하는데 충남도서관보다 3배 이상 이용객이 많은 편인 것 같다. 이곳은 책을 보고 공부하고 일하는 곳이 아니며, 자연 속에서 편히 쉬고 즐기며 책을 보고 정보를 얻는 공간의 이미지로 디자인과 설계가 되어 많은 시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하는 곳 같다.

☞ 관련부서: 행정과, 시설과

○ 김동일 의원

☞ 자연을 훼손하거나 지배하는 구조가 아닌 친환경적으로 자연과 어울려진 건물 구조가 인상에 깊다. 우리 충남에서도 친환경 도서관을 운영한다면 학생들이 조금 더 책을 편안하게 접하고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다. 4차 산업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전자 기기들이 현대 문명에 더 친숙해지는 가운데 이러한 친환경적인 도서관은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 하나의 쉼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관련부서: 행정과, 시설과

3) 방문기관 사진



관계자의 설명을 경청하는 연수단

도서관 내부 모습



도서관 실내 견학하는 장면

도서관 시설 설명에 대해 경청하는 장면



도서관 외부시설 견학

방문 종료 후 기념촬영

III. 기타 활동내용 (역사문화도시 탐방)

① 싱가포르 -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머라이언 공원

«주요현황»

-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

- ‘도시 속의 정원’이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는 슈퍼 트리, 플라워 돔, 클라우드 포레스트가 유명하다. 이 정원은 싱가포르 국가의 녹색 작업에 참여한 다원적인 전문가 팀에 의해 운영되는데, 이를 개발하기 위해 국제 및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일했다. 이들은 숙련된 조경 디자이너, 원예가, 수목 재배 전문가, 엔지니어, 식물 보건소, 정원 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팀과 식물 연구 및 난초 재배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 이 정원은 Bay South, Bay East, Bay Central 등 세 개의 독특한 해안가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머라이언 공원

- 싱가포르의 국가적 상징물인 머라이언 상이 세워져 있는 공원이다. 머라이언이란 인어를 뜻하는 ‘Mermaid’와 사자를 뜻하는 ‘Lion’의 합성어로 상반신은 사자, 하반신은 물고기 몸통을 하고 있는 상상속의 동물이다.
- 머라이언 공원 뒤로 자리잡은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은 5성급 리조트 호텔로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리조트 운영 회사인 라스베이거스 샌즈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 건설 기업인 쌍용이 건설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진자료»



② 대만 - 중정기념당, 타이페이 101 전망대

〈〈주요현황〉〉

- 중정기념당

- 중정기념당은 초대 총통이자 타이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추앙받는 장제스(蔣介石)를 기리는 기념당이다. 1975년 장제스 총통이 서거하자 그의 위업을 기리기 위한 기념당 설립이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1980년 4월 5일 중정기념당이 정식 개관하였다. ‘중정’은 장제스의 본명이다.
- 25m²에 이르는 자유광장에 우뚝 선 높이 70m의 건축물이 중정기념당이다. 중정기념당에 입장하려면 총 89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89라는 숫자는 장제스가 서거한 나이를 뜻한다. 계단 위에는 거대한 장제스 동상이 서 있다. 동상 앞을 지키는 근위병들을 볼 수 있으며 때 시각 정시에는 근위병 교대식이 이루어진다. 1층 전시실에는 장제스의 생애를 엿볼 수 있는 사진과 유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 타이페이 101 전망대

- 타이페이 101 혹은 타이페이 세계금융센터는 101층으로 지은 타이완의 대표적인 마천루로, 2010년까지는 세계의 고층 빌딩 중 제일 높은 고층 빌딩이었다.
- 정식 명칭은 타이베이 세계금융센터이며 과거에는 타이베이 국제금융센터이나 세계적으로는 약칭인 ‘타이페이 101’이 널리 쓰이고 있다. 지하 5층, 지상 101층이며 101층 위로 60m 높이의 첨탑이 솟아 있다. 첨탑을 포함한 건물 높이는 508m이다.

〈〈사진자료〉〉



③ 대만 - 지우펀(폐광된 광산촌)

〈주요현황〉

- 타이베이에서 버스로 약 1시간 20분 거리에 위치한 작은 산골 마을이다. 과거 이 마을에는 모두 아홉 식구가 살았는데, 인근 마을에서 들여온 생필품 등을 아홉 집이 나누어 가졌다고 하여 지우펀(九份)이라 불렸고, 이후 공식적인 지명이 되었다.
- 1893년까지는 고립된 마을이었으나, 이 지역에서 금맥이 발견되고 금광으로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마을이 발달하게 되었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호황을 누렸으며 오늘날까지 당시에 지어진 일본식 건물들이 남아 있어 중국과 일본의 문화가 결합된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포로 수용소가 세워져 연합군 포로들이 이곳에서 금광 노동을 하기도 했다.
- 종전 이후 금광은 점차 쇠락하였고, 1971년에 폐광되었다. 1989년에 이 마을을 배경으로 촬영된 영화 <비정성시>가 큰 인기를 얻으며 관광 명소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였다. 한국인들에게는 드라마 <온에어>의 촬영지, 일본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모티브가 된 장소로 유명하다.

〈사진자료〉



④ 대만 - 야류 해양국립공원

〈〈주요현황〉〉

- 예료우는 완리구에 위치해 있으며, 북해안의 좁고 긴 곳에 돌출되어 있다. 천 백 만년의 침식과 풍화적 교호작용을 거쳐서 심상암, 촛대 바위, 생각 바위, 호혈, 바둑판 바위, 해식동 등 지질 기관이 형성됨으로써 전체 길이 1,700m의 곶은 북타이완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지질공원으로 되었고, 또한 주변의 풍부한 해양 생태, 어촌 풍경 등 다양한 모습은 예료우를 교육, 관광, 그리고 휴식 기능을 갖춘 여행 명소로 각광 받게 한다.
- 총 3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 1구역은 벼섯바위가 밀집되어 있어, 벼섯바위의 생장과정을 감상할 수 있으며, 유명한 촛대바위가 있다. 제 2구역은 제1 구역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으나, 야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여왕바위가 있다. 이집트의 여왕인 네페르티티의 옆모습을 꼭 닮은 이 장소는 야류 해양국립공원의 명소이다. 제 3구역은 기암괴석과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있다.

〈〈사진자료〉〉



5 대만 - 국립고궁박물관

〈주요현황〉

- 이곳은 타이베이 시 스린 구에 위치한 중화민국 행정원 소속 국립박물관이다. 국 민당 정부가 타이완 섬으로 들어올 때 가져온 문화재를 전시하고 있는 ‘중화문화의 보물창고’로 세계 4대 박물관 중 하나로 손꼽힌다. 박물관 건물은 지상 4 층의 중국 전통 궁전 양식으로 되어 있다.
- 중국 황실 컬렉션 중 최고 수준의 작품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소장품이 너무 많아 옥제품 · 도자기 · 회화 · 청동의 작품들은 3개월에 1번씩 교체 전시한다. 박물 원의 소장품은 중국 송대(宋代)와 원대(元代), 명대(明代), 청대(清代) 등 네 왕조의 궁정유물을 계승한 것으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상당한 규모를 지니고 있다. 은 허(殷墟)의 출토품을 포함한 청동기, 옥기, 시대별 서화, 도자기, 자수, 문방구, 문 현 등 모두 75만 점을 소장하고 있다.

〈사진자료〉



IV. 출장 후기

싱가포르 대만 2개국 출장을 마치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오인철

제11대 충청남도의회 개원 후 구성된 교육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지금껏 정신없이 바쁘게 시간이 지나온 것 같다.

교육위원회의 국외출장이 결정된 후 교육강국의 선진 교육시스템과 우수교육정책을 공부하고 우리 충남교육의 실정에 맞게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님들과 전문위원실 직원분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 싱가포르와 대만으로 출장지를 선정하게 되었다.

10. 20(화)~10. 28(일) 5박 6일간의 싱가포르와 대만 동남아시아 2개국 국외출장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방문하게 될 싱가포르는 작지만 강한나라로 서울시의 1.2 배 면적과 인구 530만명의 작은 국가이지만 2017년 기준 국가경쟁력 세계3위, 1인당 GDP 아시아 1위, 교육경쟁력 아시아 1위의 강국이다.

출장 첫 날 인천공항을 출발해 6시간 가량 비행을 마치고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따뜻한 날씨가 반갑게 맞아 주었다. 10시쯤 숙소에 도착하여 2일차 일정을 준비하며 설레는 첫 일정을 마무리 했다.

다음날 우리 교육위원회 연수단은 첫 번째 공식일정으로 싱가포르 교육부 HERITAGE CENTER를 방문했다.

이 곳은 싱가포르의 교육을 벤치마킹하기 찾아오는 많은 국가들이 싱가포르 교육시스템과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첫 번째로 방문하는 곳으로 19세기 초부터 현재에 이르는 이 나라의 교육시스템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갖춰져 있다.

싱가포르는 ‘두뇌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지하자원, 먹는 물조차 70%를 인접국가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보의 집중화, 기술의 고도화, 이를 통한 고부가 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다양한 인종 구성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식민지 시절부터 이민정책을 펴왔다

1965년 제정된 싱가포르 헌법은 각 인종간 평등주의를 명시하고 영어 이외에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였으며, 다민족간 각 종교 별로 균등하게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다

독립 후 싱가포르 정부는 다인종 사회를 어떻게 통합해 나갈지에 대해 고심한 결과 어느 인종이나 종파와도 무관한 영어를 공용어로 정하는 이중언어 정책을 통해 싱가포르를 세계와 연결시켜 주었고 중국어는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과의 교류를 활성화 시켜 싱가포르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은 경쟁위주의 수월성 교육으로 초등학교때부터 경쟁이 치열하지만 중,고등학교시기 진로와 관련하여 수준별로 직업전문학교를 선택하는 등 사회진출에 큰 문제가 없으며, 치열한 선발과정을 거쳐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상당수 정부에서 장학금을 제공하며 해외유명대학으로 유학을 다녀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싱가포르의 경쟁위주 엘리트 교육과 이중언어정책은 최근 우리의 대학입시제도와 외국어 교육의 문제점이 더욱 크게 느껴졌으며, 앞으로 충남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에는 싱가포르 한국 국제학교(SKIS)를 공식방문을 이어 갔다. 한국 국제학교는 한국의 교육과정과 여러 국제학교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 영어, 중국어의 3개 언어를 교육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은 다양한 경험의 가능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었다. 교육과정의 특징은 학급공동담임제로 한국어/영어 선생님이 공동담임이 되어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등을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의 능력과 수준을 고려한 영어와 중국어 교육은 학년별 3레벨 수준별 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단계와 평가를 통해 학급을 편성하고 있다.

또한 담임과의 면담시간은 사전에 예약제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언제든지 찾아가서 면담을 할 수가 없는 것은 교권 보호를 위해 우리도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싱가포르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4시간의 비행 끝에 두 번째 방문 국가인 대만 도원공항에 도착했다.

대만은 한때 싱가포르와 함께 국가주도 교육정책에 힘입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울 정도로 큰 발전을 이뤘었지만 ‘9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는 중국의 그늘에 가려 최근 국제사회의 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만의 첫 번째 공식일정으로 타이페이시 정부교육국에 방문했다. 교육국의 종합기획과장의 타이페이시 교육정책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미래를 향한 타이페이 교육 약진’ 을 공약으로 내세운 타이페이 시의 슬로건에서 대만 교육의 방향성이 잘 드러났다. 대만 역시 대한민국처럼 주로 교사 주도적 교육이지만, 아이패드를 활용한 학생들의 영상 제작이나 게임을 통한 교육 방법 등 다양한 교육 공학 분야의 시스템은 한국에서도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4차 산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이러한 예산 지원들이 한국 교육에도 다양하게 접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오후 두 번째 일정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손꼽히는 타이페이시 시립도서관 분관인 베이터우 시립도서관을 방문했다 주변 산책로와 조경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는 친환경 목조건물로 지역주민들이 자연속에서 편히 쉬며 온전히 독서만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다. 독서교육 활성화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온전히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 잠시 생각에 잠겨본다.

5박 6일의 출장일정을 모두 마쳤지만 좀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서 교육위원회 모든 의원님들에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첫 공무국외 출장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 바쁜 공무중에도 참여해주신 교육청 직원분들, 출장 준비부터 마지막까지 고생하신 전문위원실 직원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출장후기를 마친다.

싱가포르의 독서교육과 대만의 기초질서교육에 대하여...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김석곤

지난 10월 싱가포르와 대만의 교육을 체험하고자 교육위원 자격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11대 충남도의회 교육위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학생, 교사, 학교를 적절히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정책과 다른 나라의 교육을 비교 분석하고 체험하면서 교육위원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출발하였다.

첫 번째 방문지인 싱가포르는 몇 차례 다녀와서 다소나마 배경지식이 있었다. 동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의 싱가포르는 인구 6백만 GDP 6만불의 아시아 최고의 부자도시국가이고 세계적인 수준의 창이국제공항이 있는 깨끗하고 범죄가 없는 나라이다. 31년간 집권한 리콴유 총리는 유능하고 깨끗한 엘리트들이 운영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서양식 민주주의와는 차별화된 신념으로 강력한 법치에 의한 통치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외자를 유치하고 고도의 산업화를 이루어낸 나라이다.

그리고 싱가포르 센토사섬은 지난 2018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53년 분단협정 이후 65년 만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핵확산을 방지, 세계 평화, 남북 화해의 분위기를 만든 의미있는 곳이기도 하다.

본 의원은 이번 연수에서는 싱가포르의 교육제도, 리콴유가 설계한 엘리트육성시스템이 어떻게 적용되고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싱가포르의 교육제도는 철저한 경

쟁과 육성, 학생 개개인에 맞는 역할 부여라고 할 수 있었다. 뛰어난 엘리트가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는 엘리트 중심주의 철학하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각자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국가 중심의 국민 통합을 위한 교육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싱가포르 교육제도는 다인종, 다언어, 다문화로 구성된 복합 사회인 점을 고려하여 교육을 통한 국민 통합 의식 양성을 국가 존립 기반의 근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헌법은 각 인종 간 평등주의를 규정하여 말레이어, 중국어, 타밀어,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으며 교육 과정은 언어 교육을 중시하며 각 인종 고유 언어 외에 영어를 필수 언어로 하여 반드시 2개 언어를 이수해야 하는 2중 언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1997년 홍콩의 중국 본토로의 반환 이후 중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 표준어 배우기를 권장하고 있었다.

싱가포르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실용주의적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세계화 및 지식 기반 경제에 적응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실용주의적 교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교과 과정은 2개 언어와 수리 과목에 치중하고 있다. 초등학교 과정부터 대학 까지 매 과정마다 경쟁을 통해 소수 정예만이 대학 과정을 마칠 수 있는 능력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나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높은 교육열로 인해 대학 진학 실패자들의 외국 유학 선호 현상이 급증하여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해외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능력과 경쟁위주의 교육의 역효과라는 생각이 들었다. 싱가포르의 교육은 그들 나름의 여건을 반영하여 최적화했다고 생각되었으나, 반면 능력위주의 교육제도가 보여준 역효과도 공존했다.

다만 싱가포르 현지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며 가장 부럽고 적용되기 를 바라는 시스템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독서교육지원이었다. 전 국민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책을 대여하고 반납하는 곳이 매우 자유

로웠다. 집으로 직접 책을 배달해서 대여해주고 수거해가는 시스템은 매우 진보적이었다. 그 외에도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장소도 다양해서 독서교육의 여건이 매우 선진적이었으며, 이런 독서교육이 싱가포르 교육의 발전과 국가 성장의 기초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되었다.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본 싱가포르의 풍광은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녹지를 조성하고자 노력하는 흔적이 곳곳에서 엿보였다. 작은 공간 심지어 호텔 벽과 베란다 옥상 등에 조성한 녹지는 공간을 구성하는 직업을 가진 나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어 대만의 교육제도와 문화를 알아보기 위해 이동하였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너무도 가까운 나라였다. 일제침략을 맞은 국난시기에 혈맹관계로 싸운 우방국이었고, 6.25전쟁시에 우리를 측면 지원한 나라였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대만과는 단교를 한 상태이다.

현재 대만의 교육계는 핵심부가 근본적 개혁의 길을 가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다. 사실상 한국에서는 그간 교육정책을 무리하게 시행하여, 예산만 낭비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었다. 대만에서는 정책시행, 교육실천에 앞서서 체계있는 교육연구가 선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거의 선행연구가 없이 외국 것, 특히 미국 것을 갖다가 외형적 실적위주로 시행함이 많았던, 그간의 한국교육 흐름은 고쳐져야 옳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대만 교육부 직원과의 대화에서 대만은 교사의 교권이 확실하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 아무리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잘 만들어져도 교권이 무너진 곳에서는 좋은 교육실천이 어려움을 생각할 때에, 교사권의 체제가 확립된 대만의 모습은 의미가 아주 큰 것이었다.

또한 학교환경을 지역사회와 연계시켜서 지역문화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육실천이 되게 하는 모습 또한 기억에 남는다. 100년 된 초등학교의 역사가 고스란히 사진자료부터 남아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들으며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앞서 싱가포르의 독서교육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말한 것처럼 대만에서는 질서 청결 등의 기초질서교육이 확고하게 이뤄짐을 느낄 수가 있었다. 도시 주변, 호텔, 관광지... 인파가 많은 곳을 돌아보아도, 누구나 질서를 지키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소란없이 생활하는 것을 보고 학교 교육이 그대로 사회에 이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웃의 작은 강국 대만의 힘은 이런 기초교육에서 찾을 수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웃 나라의 교육제도를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 하며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른 나라의 교육제도를 무조건 받아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여전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육선진국이란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싱가포르의 독서교육 여건과 대만의 기초질서 교육은 우리나라에 맞게 적용 될 수 있도록 교육청, 지자체 등과 함께 고민을 해보고자 한다.

싱가포르, 대만 교육기관 방문 연수를 마치고....

충청남도교육청
의회협력팀장 구본용

첫 번째 연수대상국인 싱가포르에 도착하기까지 설렘 반 기대 반으로 비행기에 몸을싣고 5시간 30분 정도 다소 긴 시간을 이동하였다. 습한 기후와 잦은 비로 연수 일정에 차질이 있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다행히 연수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늦여름 날씨 정도의 기온에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어 연수 일정에 도움을 주었다.

처음 방문한 싱가포르는 서울보다 약간 큰 작은 도시국가이지만 잘 정비된 계획도시답게 깨끗한 거리와 다양한 열대 식물로 가득찬 가로수가 다수의 녹지면적과 어우러져 이국적인 색채로 다가왔다.

도시국가로 부존자원이 전혀 없는데도 무역 위주의 중개업을 통하여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어 불가피하게 일시 체류민이 다수 존재하는 다인종국가가 생성될 수밖에 상황에서도 다인종의 국민을 하나로 묶어 발전된 현재의 사회 경제체제를 정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우수한 교육제도의 도입에서 시작하였다고 하니 더욱 관심이 끌리게 되었다.

첫 일정으로 19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싱가포르 교육시스템을 소개하는 MOE Hertige Centre를 방문하였다.

극단적인 엘리트주의와 능력주의에 바탕을 두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시험을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를 구분한 후 소수의 엘리트를 육성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통하여 빠르게 중학교 때부터 진로를 확정하도록 한다는 교육제도를 소개받으면서 이채롭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 교육현실에 주는 시사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시험결과 하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전문분야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최대한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사회적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적 편견으로 곡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이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대다수가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교육제도 로드맵을 기반으로 유능한 교사 양성제도를 병행하여 교육이 사회 경제적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IT를 기반으로 하는 과감한 교육정책을 추진 중에 있었다.

두 번째 일정으로는 싱가포르에 일시 주재하는 한국 체류민 자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학제와 동일하게 운영 중인 한국국제학교를 방문하였다. 다양한 교육과정과 특화된 언어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교직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다만 현지 교육환경 여건이 국내와 다르게 열악한 실정으로 현지 주재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 유치와 싱가포르 내 국제협력 증진·교류 사업 발굴 등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 여건 조성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싱가포르 일정을 마치고 두 번째 방문국인 대만에 도착하였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부상하던 대만이 최근 다소 경제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에 부합하게 수도인 타이페이의 밤은 다소 어둡다는 인상이 먼저 들었다.

대만에서의 첫 일정은 대북시정부교육국 방문으로 시작하였다. 대만의 학제는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였고 각급학교 설립 및 관리 등이 지방정부의 자치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격적인 교육활동 지원이

가능한 체제이며, 우리가 방문한 대북시의 경우 시장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원활한 교육재정 확보를 통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했다는 설명에 많은 시사점이 있었다.

다만 대만의 경우 산악지형이 많은 상황으로 지방의 곳곳에 산재한 벽지학교 등의 벽지교육 활성화, 특성화 전략 추진이 우리도와 유사한 관계로 많은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방문기관이 대만의 중심도시인 타이페이로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교육부의 벽지지역 교사 인력 공급 안정화 연구자료만을 확인할 수 있어 아쉬움이 있었다.

대만 두 번째 일정으로 목조건물로 이루어진 시립 베이터우 도서관을 방문하였다. 온천지역과 연계하여 친환경 목조건물로 수풀이 우거진 고즈넉한 분위기에 공원을 찾는 현지인들의 이용이 많았던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에도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자연친화적 도서관의 설립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급증하고 있는데 학교도서관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수기간 중 다양한 기관방문 등 빠듯한 일정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고 연수를 이끌어주신 오인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도로 뜻깊고 유익한 연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점에 감사를 드린다.

특히 기관방문 시 우리교육에 접목시킬 시사점을 찾고자 끝임없는 질의와 관심으로 방문기관과 약속된 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모습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

연수를 마치며 미력하나마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의 다짐이 앞서게 되었던 의미있던 연수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